

■ 최신 해외정보 - 라오스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성황리에 개최, 라오스 경제성장률 주목

제9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지난 11월 5일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SEM은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하여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정상과 각료가 참석하는 중대한 국제적 이벤트인데, 이를 아시아의 최대 개발도상국인 라오스가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라오스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오스는 지난 수년간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한 동남아 지역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올해에는 광산개발과 수력발전 사업성장에 힘입어 8%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WTO 가입 승인

지난 10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특별회의에서 라오스의 WTO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는 이번 가입안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WTO에 통지만 하면 WTO의 회원국이 됩니다. 라오스는 1997년 WTO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개정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관세 한도 제한, 해외자본의 진입 규제 완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 라오스의 WTO가입을 계기로 라오스와 우리나라 간의 통상협력관계도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